



俗說 “기생충”



우리는 “기생충”이란 말을 여러 곳에서 쓰고 있다. 남에게 붙어서 얻어 먹는 것을 “기생”이라고 한다. 기생충은 우리 몸속에서만 몰아낼 것은 아니다. 사회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밝고 명량한 사회에서도 단호히 몰아 내어야 겠다.

기생충적 인간



李 炳 注

돼지, 개, 여우, 뱀을 비롯해서 이리, 호랑이 사자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동물이 우굴거리고 허울 좋은 말과 행동을 꾸미며 생존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곳이 곧 사회다.

이와 마찬가지로 발상(發想)으로 인간사회의 기생적현상(寄生的現象)을 지적할 수가 있다. 사람에게겐 누구나 기생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고립한채 혼자서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고 보면 그 기생적인 측면을 나쁘

인간사회(人間社會)를 동물원에 비유할 수가 있다. 사람의 탈을 쓴

다고 만든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기생적측면(寄生的側面)이 지나치면 인간은기생충(寄生蟲)으로 하락한다. 예컨대 이(虱) 같은 놈, 곰팡이 같은 놈, 조충이나 회충 같은 놈으로써 타기(唾棄)의 대상이 된다. “벼룩에도 낮짝이 있고 빈대에도 체면이 있는 체” 운운으로 시작되는 육설은 기생충만도 못한 놈이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말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주변(生活周邊)엔 너무나 기생충적인간이 많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그 첫째 부류를 상습적인 범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들은 정업(正業)을 모르고 이웃의 정상적인 생활을 유린(蹂躪)함으로써만이 살길이 있다는 착각을 가진 자들이다. 물론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사회의 병리적인 부분이 그들을 있게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기생충적인간의 증가는 마땅히 우려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 마음의 부류는 관청과 큰 회사의 주변에 우글거리고 있는 대소의 브로커들이다. 그들은 이권(利權)만을 쫓아 많고 적은 「리베트」를 노리며 산다. 사회의 공기를 탁하게 하는 원인

이들에게 있다는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것은 관청과 대회사의 병리적인 측면이 만들어 놓은 기생충들이다

세계 부류에 드는 기생충적 인간은 친척이나 친구의 등에 업혀 사는 족속들이다. 물론 이 가운데 불려의 사건으로 실적을 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까지 기생충이라고 하는건 가혹하지만 그 상대가

영속하고 상습화 되면 영락없이 기생충적이다. 이러한 족속 가운데 인간



성(人間性)이 좋은사람이 많다는 것도 알아둬적하다. 인간성은 중퇴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은 거개 이러한 기생충이 된다. 인간성과 생활능력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소이(所以)는 여기에 있다.

생을 이 세상에 받아 이와 벼룩이나 빈대에 비유되는 인생이 되어선 되겠는가. 회충이나 조충의 모양을 그려놓고 비록 인간의 탈을 쓰고 있지만 내용은 바로 저 꼴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이라면 느끼는 절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소설가>